

질의와 응답

물음 ‘한글 맞춤법’ 해설에서 제1항인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설명하면서 소리대로 적는 것에 ‘막-아/먹-어’, ‘소-가/말-이’ 등의 변이 형태를 예로 들었는데 한자어 ‘比率’을 ‘비률’이 아닌 ‘비율’로 적는 것 등이 오히려 더 적절한 예가 아닌지요? (한명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답 우선 예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해설 부분을 원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어법에 맞도록 적음)은 모든 언어 형식에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형식 형태소의 경우는 변이 형태를 인정하여 소리나는 대로 적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막-아/먹-어”, “소-가/말-이” 따위와 같이, 음운 형태가 현저하게 다른 것을 한 가지 형태로 통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앞 부분의 해설은 명사 ‘꽃’ (花)이 꽃이[꼬치], 꽃나무[꼇나무], 꽃다발[꼇파발] 등으로 다양하게 발음되고, 형용사 ‘늡다’의 ‘늡-’이 늡고[늡꼬], 늡지[늡찌], 늡는[늡는] 등으로 다양하게 소리가 나도 실질 형태소는 본모양을 밝혀 ‘꽃’과 ‘늡-’으로 적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와 비교하여 보면 ‘막아/먹어’, ‘소가/말이’의 경우는 한글 맞춤법에서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의 예라기보다는 변이 형태는 주로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에 나타나는데 특히 어간과 체언의 종류에 따라 이에 이어지는 어미나 조사에 변이 형태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로서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것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위 해설에서 예로 든 것은

어법에 맞지 않아서 소리대로 적은 경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변이 형태를 하나로 통일하여 적는 것이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바른 해설을 붙이려면 남북한에서 맞춤법의 차이를 보이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드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남한 표준어	북한 문화어	발음
가. 비율(比率)	비률	[비율]
효율(效率)	효률	[효율]
나. 넷가	내가	[내까/*넛까]
뒷일	뒤일	[똥닐/#똥일]
다. 어금니	어금이	[어금니]
아랫니	아래이	[아래니]

위에서 북한 문화어 맞춤법은 발음에 많은 부담을 주면서도 어법에 맞게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반면, 우리 맞춤법은 표기에 부담을 주면서도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의 예 모두의 발음은 남과 북이 거의 같아서 '넷가'의 경우 남한에서는 [내까/넛까]가 다같이 허용되나 북한에서는 [내까]만 허용되고, '뒷일'의 경우 남한에서는 [똥닐], 북한에서는 [똥일]로 발음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 밖에도 본모양에는 어긋나지만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경우는 남한에서는 두음 법칙에 관련되는 단어들이 있을 수 있으며, 굳이 남북한의 예를 비교한다면 남한에서 '폐'로 표기하고 [페/페]로 소리나는 한자 '廢, 蔽, 肺, 閉, 幣, 陴' 등을 북한에서는 모두 '페'로 적고 적힌 대로 소리낸다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소리대로 적는 것의 예로는 '막아/먹어', '소가/말이'보다 위의 남한 표준어 항의 단어들을 열거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전수태)

■ '하계 마련이다', '하기 마련이다'는 둘 모두 올바른 표기입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어느 것 하나만 올바른 표기입니까?

(이상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전에는 둘 모두 맞는 표기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하기 마련이다’로 쓰시기를 권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는 종결 어미로 쓰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종결 어미로 쓰이는 예는 “이 일은 자네가 맡게.”, “그랬다가 꾸중은 누가 듣게.”, “폐품을 모아서 무엇에 쓰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종결 어미가 아닌 경우만 언급하겠습니다.

종결 어미가 아닌 경우의 ‘-게’는 동사에서는 어떤 목표나 행동의 미침을 나타내고 형용사에서는 어떤 움직임의 모양(상태, 성질)이나 기준을 나타냅니다. 이는 ‘-게’ 다음에 이어지는 동사나 형용사가 의미상 이를 뒷받침해 준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게 하다’, ‘가게 되다’, ‘잘 자라게 거름을 주다’는 전자의 예이고 ‘아름답게 핀 꽃’, ‘맛있게 장만하다’, ‘눈부시게 희다’는 후자의 예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전에서는 종결 어미가 아닌 경우의 ‘-게’는 연결 어미 ‘-도록’과 용법이 비슷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게’의 뒤에 동사나 형용사가 연결된다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습니다.

한편, ‘-기’는 ‘이다’나 동사, 형용사의 어간에 붙어서 명사형을 만드는 전성 어미인데 ‘가기도 잘도 간다’, ‘일하기가 쉽다’, ‘회기가 눈 같다’ 등으로 쓰입니다. 이 때의 ‘-기’는 모두 체언처럼 쓰여서 조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는 이 외에도 ‘명사+이다’와 통합하여 어떤 것을 지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 ‘-도록’보다 ‘-기’에 ‘명사+이다’가 더 자연스럽게 어울린다는 것을 예로 보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하기 나름이다	*-하게 나름이다	*-하도록 나름이다
나. -하기 때문이다	*-하게 때문이다	*-하도록 때문이다
다. -하기 십상(十常)이다	*-하게 십상이다	*-하도록 십상이다
라. -하기 마련이다	?-하게 마련이다	?-하도록 마련이다

위에서 ‘나름’, ‘때문’은 의존 명사이고 ‘십상’은 ‘십상팔구’(十常八九: 열 가운데 여덟이나 아홉)의 약어로서 보통 명사이고, ‘마련’은 보통 명사이면서 의존 명사로도 쓰이는데 보통 명사로 쓰일 때는 ‘-하다’가 붙어 동사 ‘마련하다’의 파생이 가능합니다. 위의 ‘마련’은 물론 의존 명사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예는 ‘명사+이다’의 형태

를 ‘-기’ 다음에 쓰면 아주 자연스러운 반면, 이를 ‘-게’나 ‘-도록’ 다음에 쓰면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게’나 ‘-도록’ 뒤에 동사나 형용사가 붙은 ‘-게/-도록+용언’의 형태가 의미상 근본적으로 동작의 목표나 상태의 기준을 나타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기’ 뒤에 명사 서술어가 붙은 ‘-기+(명사+이다)’의 형태는 이와 같은 의미 없이 단순히 지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작성이나 상태성을 전제로 하는 ‘-게/도록’과 단순히 지정하는 기능을 가지는 ‘명사+이다’와는 서로 어울리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는 둘 모두 가능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하기 마련이다’를 쓸 것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입니다. (전수태)

문 “그가 한 말은 사실이 _____.”에서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아니예요’가 맞습니까? ‘아니예요’가 맞습니까?

(임다울, 경기도 고양시 일산3동)

답 ‘아니예요’가 맞습니다. <표준어 규정> 26항에서는 ‘-이에요’와 ‘-이어요’를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통적인 어법은 ‘-이에요’ 쪽이었으나 광복 후 국민학교 국어 교과서에 ‘-이어요’ 형이 표준어로 실리면서 젊은 층에서는 ‘-이어요’ 형도 꽤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88년에 고시된 <표준어 규정>에서는 전통 어법을 중시하여 비표준어로 간주되었던 ‘-이에요’를 되살리고 이를 ‘-이어요’와 함께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으)세요’와 ‘-(으)셔요’, 대답 소리 ‘네’와 ‘예’를 모두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처리입니다.

한편, ‘-이에요’, ‘-이어요’에서 ‘-이-’는 서술격 조사 ‘이다’이기 때문에, ‘-이에요’, ‘-이어요’ 앞에는 체언이 옵니다. 그래서, 받침 있는 체언 뒤에서는 아래 (1)과 같이 ‘-이에요’, ‘-이어요’로 나타나고, 받침 없는 체언 뒤에서는 아래 (2)와 같이 ‘-예요’ 형으로 나타납니다. 받침 없는 체언 뒤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에요’ 형만을 인정하며 그것도 ‘이’와 ‘예’가 축약된 ‘-예요’ 형으로만 쓰입니다. (즉, 받침 없는 체언 뒤에서는 복수 표준어 ‘-이에요’, ‘-이

어요'를 인정하지 않고, '-이예요'에서 줄어든 '-예요'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책+-이예요/-이어요 → 책이예요/책이어요 (받침 있는 체언 뒤)

(2) 저+-이예요 → 저예요 (받침 없는 체언 뒤)

그런데, 현대국어에서 '아니다'는 체언이 아니라 용언(형용사)이기 때문에 <표준어 규정> 26항을 엄밀히 따르면 '-이예요', '-이어요'를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 (3)에서 보듯이 '아니다'는 서술격 조사 '이다'와 활용 양상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아니예요', '아니어요'를 인정할 수 있을 듯합니다.

(3) '이다', '아니다'의 활용 양상

가. '어서/-아서' 형 대신 '라서' 형이 쓰임 : 책이라서, 책이 아니라서

나. '는구나, -구나' 형 대신 '-로구나' 형이 쓰임 : 책이로구나, 책이 아니로구나

(3가)는 보통의 용언 어간이라면 '어서/-아서'가 올 자리에(예 : 먹어서, 좋아서) '라서'가 온 예이고, (3나)는 보통의 용언 어간이라면 '는구나', '구나'가 올 자리에(예 : 먹는구나, 좋은구나) '-로구나'가 온 예입니다. 이는 서술격 조사 '이다'와 형용사 '아니다'가 어미 활용에서는 같이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처럼 '이다'와 '아니다'가 같이 어미 활용을 하는 이유는 기원적으로 '아니다'가 '아니'라는 체언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아니다'는 비록 체언이 아니나 서술격 조사 '이다'와 어미 활용을 같이 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표준어 규정> 26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는 '-이예요', '-이어요'에서 서술격 조사 '-이-'가 빠진 '-예요', '-어요'가 결합합니다. 아래 (4)는 '아니다'에 <표준어 규정> 26항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4) 아니-+-예요/-어요 → 아니예요/아니어요

결국, 우리는 <표준어 규정> 26항을 다소 수정한 셈입니다. 우리의 견해에

따르면 ‘-이에요’는 서술격 조사 ‘-이-’와 ‘-예요’로 분석되고, ‘-예요’는 선어말 어미 ‘-(으)시-’, 서술격 조사 ‘이다’ 및 ‘아니다’의 어간 뒤에만 결합하여 평서나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가 됩니다.

한편, ‘아니예요’ 대신에 ‘아니예요’를 표준어형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견해는 아래 (5)과 같은 결합 과정을 전제합니다.

(5) 아니+이에요 → 아니+예요 → 아니예요

즉, ‘아니’가 예전에 명사로 쓰였던 사실에 근거하여 현대국어에서도 ‘아니’가 명사로 기능하는 예가 화석처럼 남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아니’ 뒤에 ‘-이에요’가 오고 이어 ‘-이에요’가 ‘-예요’로 줄어들어(서술격 조사 뒤에 ‘-다’와 같은 자음 어미가 오면 ‘철수이다/철수다’에서처럼 서술격 조사가 탈락될 수 있으나, ‘-예요’와 같은 모음 어미가 오면 서술격 조사가 탈락하지 않고 뒤이어 오는 모음과 축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니예요’가 됩니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도 ‘아니’가 명사로 기능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임동훈)

문 ‘_____ 하는 연예인’이란 표현에서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내노라’가 맞습니까? ‘내로라’가 맞습니까? 그리고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임지선,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답 ‘내로라’가 맞습니다. ‘내로라’는 기원적으로 대명사 ‘나’에 서술격 조사 ‘-이-’, 주어가 화자와 일치할 때 쓰이는 선어말 어미 ‘-오-’ (흔히 의도법 선어말 어미나 1인칭 선어말 어미라 부르기도 합니다.), 평서형 종결 어미 ‘-다’가 차례로 결합된 형식입니다. 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로라: {나} + {이-} + {-오-} + {-다} → 나+이-+로-+라 → 내로라

중세국어에서는 ‘-오-’가 서술격 조사 ‘이다’ 뒤에서 ‘-로-’로 바뀌고, 평서형 종결 어미 ‘-다’가 선어말 어미 ‘-오-’ 뒤에서 ‘-라’로 바뀌는 현상이 있어서, ‘{나} + {이-} + {-오-} + {-다}’는 ‘내로라(<나+이-+로-+라>’로 나타남

니다.

그런데, 선어말 어미 ‘-오-’의 화석은 현대국어에도 남아 있습니다.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에서 ‘-노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노라’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느-’에 어미 ‘-오라’가 결합한 것인데, 이때의 ‘-오라’는 우리가 (1)에서 보았듯이 선어말 어미 ‘-오-’와 평서의 종결 어미 ‘-라’ (‘-다’는 ‘-오-’ 뒤에서 ‘-라’로 바뀝니다.)로 구성된 형식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논의는 ‘-로라’의 성격이 ‘-오라’와 같다는 주장으로 귀결됩니다. ‘-로라’의 ‘-로-’는 선어말 어미 ‘-오-’의 판 형태(전문 용어는 이형태(allomorph)입니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라’가 ‘-오라’와 같다면 ‘-로라’는 ‘-노라’와 같은 부류의 어미가 됩니다. ‘-노라’(<-느-+-오라’)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느-’에 ‘-오라’가 결합되어 형성된 형식입니다. 국어에서 ‘-느-’는 동사 어간 뒤에만 나타나고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의 어간 뒤에는 나타나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어, ‘-노라’는 동사 어간 뒤에만 나타납니다.

선어말 어미 ‘-느-’가 나타나지 못하는 서술격 조사 ‘이다’나 형용사 ‘아니다’ (‘아니다’는 기원적으로 명사 ‘아니’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형식입니다.) 뒤에는 ‘-느-’가 빠진 ‘-오라’만 나타나며, 이때 ‘-오-’는 ‘-로-’로 바뀝니다. 이처럼 서술격 조사 뒤에서 ‘ㄹ’이 덧나는 현상은 그 밖에도 존재합니다. 연결 어미 ‘-아서/어서’가 서술격 조사 뒤에서 ‘-라서’로 바뀌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잘못이라서(잘못이어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 ‘-노라’와 ‘-로라’가 쓰이는 예에는 “각 분야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 모두들 자기 책임이 아니로라 우기기만 한다.”나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따위가 있습니다. (임동훈)